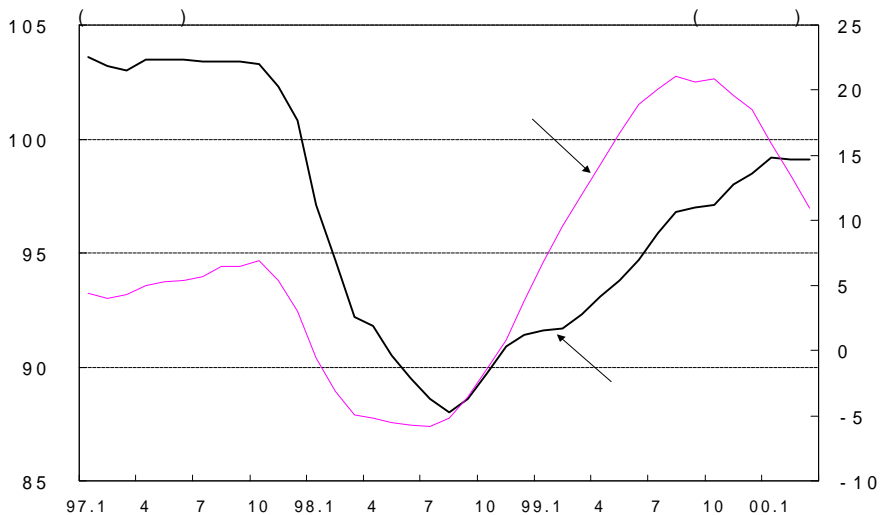


산업 활동

- 3월중에도 생산, 소비, 투자 등 실물 경제 지표가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었지만, 증가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(생산) 반도체, 사무 회계용 기계, 자동차 등의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석유 정제 등의 생산이 감소하여 2월(25.4%)에 비해 낮은 17.6%의 증가율을 기록함
 - (소비) 컴퓨터, 대형 할인점, 백화점 등의 판매 호조가 지속된 반면, 자동차, 휴대용 전화기 등의 판매 신장세가 둔화되어 전년 동월 대비 12.8% 증가함
 - (투자) 설비 투자와 건설 수주는 각각 45.8% 및 55.7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지만 1, 2월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
- 현재의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월에 이어 보합세를 보여 경기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 - 향후 6~7개월 후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의 전년 동월비 증가율도 전월에 비해 2.6%p 하락하는 등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향후 경기 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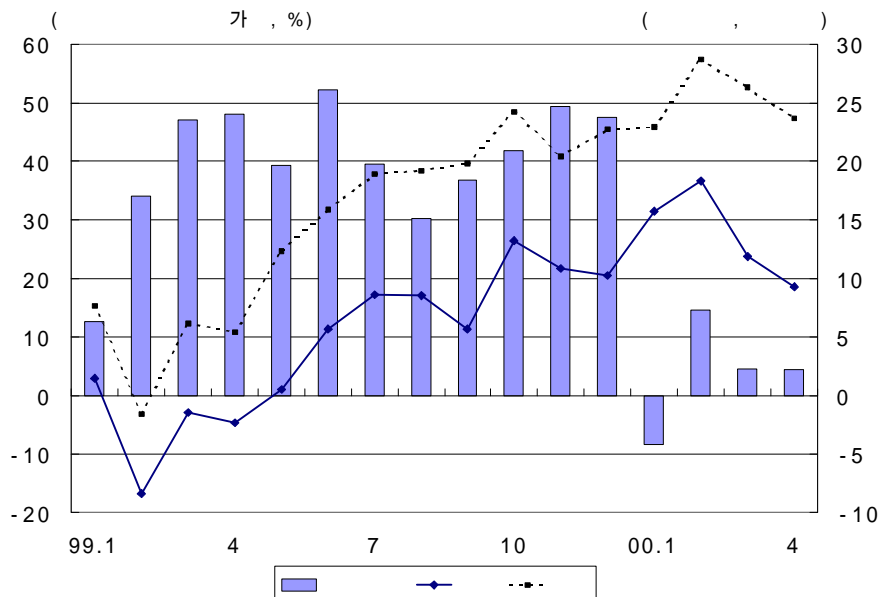
< 경기종합지수 추이 >



대외 거래

- 4월 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.6% 늘어난 136.4억 달러를 기록하여, 3월 이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
 - 동남아 개도국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으나 미국, EU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 신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
 -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노사 분규로 인한 자동차 수출 차질과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축산물 수출 차질, 그리고 선거로 인한 조업 손실 등에 기인함
-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7.4% 증가한 134.2억 달러에 달해, 4월 중 하루 평균 수입액이 사상 최대치인 6.24억 달러를 기록함
 - 고유가 지속과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시설투자 확대로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 증가율이 각각 58.0%와 61.3%를 기록하여 수입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음
- 수입 급증에 따라 4월 중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에 비해 크게 축소됨
 - 4월 중 무역수지 흑자는 2.3억 달러로 전년 동월의 24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해 연말까지 정부 목표액인 120억 달러 달성이 불투명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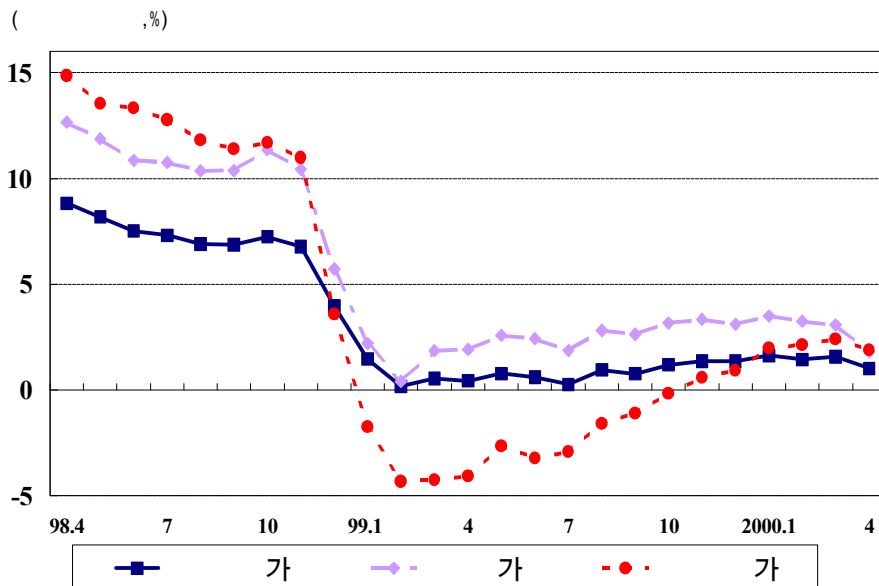
<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>



물가 동향

- 4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의 하락세 지속에 힘입어 전월 대비 0.3% 하락하여 전년 동월 대비 1.0% 상승하는데 그침
 - 의료 수가가 인상된 공공서비스 요금(1.0%, 전월 대비)과 개인서비스 요금(0.2%)은 상승하였으나, 채소류 출하 증가 및 축산물 소비 부진으로 농축수산물 가격(-2.4%)이 큰 폭으로 내리고 석유류 가격(-0.7%)도 내림세를 나타냄
 - 한편 생활물가지수는 파, 감자, 한우소고기, 등유, 휘발유 가격 등이 내려 전월대비 0.7%(전년 동월 대비 1.8%상승) 하락함
- 빠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소폭 상승(전년 동월 대비)하는데 그쳐 작년의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
 - 한편,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강세, 경기 회복세로 인한 임금 등 생산 요소 비용 상승 압력 증대, 그리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시사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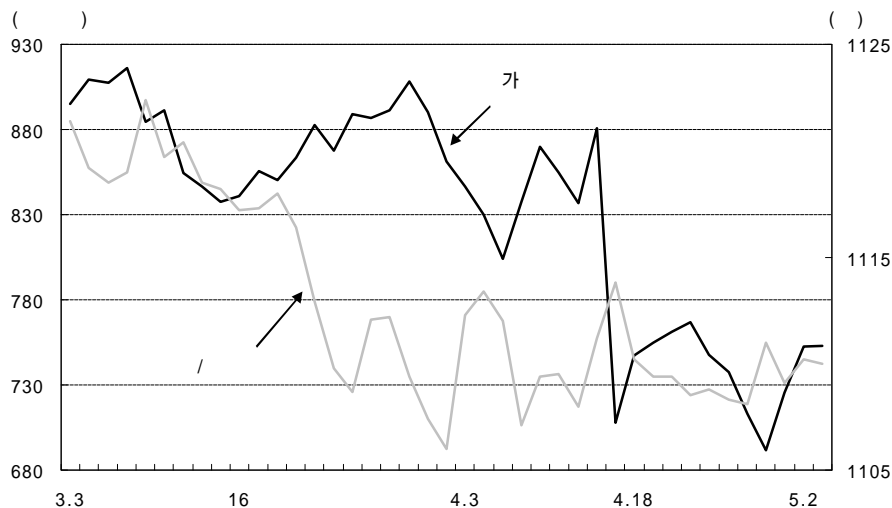
< 최근 물가 추이 >



금융 시장

- (원/달러 환율) 4월 중 원/달러 환율은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 자금 유출과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에 따른 달러 공급 감소,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 등으로 하락 압력이 둔화
- (금리)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자금 조성 문제와 현대의 자금 악화설 파문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의 금융시장 안정 의지에 힘입어 하향 안정세 유지
 - 국내 금융 시장 불안으로 매수세가 극도로 위축되었으나 한은의 콜금리 현 수준 유지 방침과 현대투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현대의 대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회사채 수익률(5월 4일 현재 9.85%)은 한 자리수를 유지함
- (주가) 종합주가지수는 수급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 대량 매도로 큰 폭으로 하락함
 - 외국인들의 주식 대량 매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한때 종합주가지수 700선이 무너졌으나, 나스닥지수의 상승세 반전과 일부 종목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감 회복으로 반등에 성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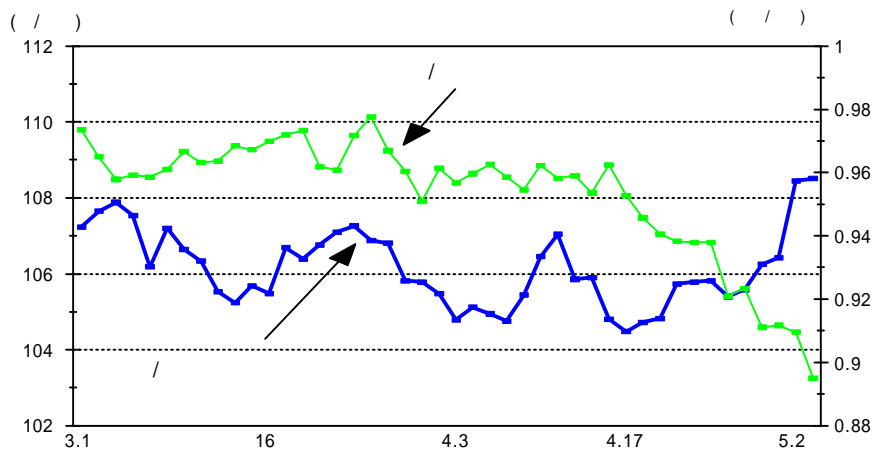
< 원/달러 환율 및 주가 추이 >



국제 경제

- 미국 경제는 2000년 1/4분기에도 5.4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91년 이후 9년째(109개월) 호황을 보이고 있음
 - 성장을 주도한 것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 소비지출로서 1/4분기 중 8.3%의 증가율을 보였음(소비지출의 미국 국내총생산 기여율: 68%)
 - 1/4분기의 5.4% 성장률은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판단하는 적정성장률(3.5~4.0%)을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연준(FRB)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
- 일본 경제는 실업률이 전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
 - 실업률이 지난 3월 전후 최고치인 4.9%를 기록하는 등 일본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모리 신내각은 경기부양을 위해 제로 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을 천명함
- 엔/달러 환율은 일본의 더딘 경기회복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, 그리고 유로화 폭락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냄
 - 유로화 환율은 미국 경제의 상대적 호조로 인한 금리 격차에도 유럽 중앙은행이 시장 개입에 나서지 않아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며 유로당 0.9달러 선이 붕괴됨

< 엔/달러 및 달러/유로 환율 추이 >



(거시경제실)